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작은 아이가 사람들과 마음이 편치 않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I May Be Wrong)'라는 책을 읽었다

우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관계를 맺으며 살아 갈 수밖에 없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상대방에게 서 운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숲속의 현자 비운은 스승이 가르쳐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준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 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뇌면, 여러분의 근심은 어 린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일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똑똑 몇 방울씩 떨어지던 비가 순식간에 굵은 장대비로 변했다.

나는 느긋했다. 우산도 있고 몇 미터만 가면 주차해둔 차도 있었다. 2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를 1시간이나 먼 지 나왔으니 여유도 있었다. 마침 광주역 앞이라 발걸음 저쪽을 향했다. 한때 얼마나 자주 드나들던 곳인가.

기고



탁인석 전 광주문인협회장

전라북도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행정명이 달라졌다.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느껴진다. 한국의 경제계 판 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은 무엇인가. 누구도 살피지 않는 대한민국의 외로운 섬의 하나일 뿐이다. 거기에 다 호남을 끌어갈 정치지도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분노와 미움이 약간 혈거워지고 그 사 이로 한결기 조용한 숨소리가 밀려들며 평온이 찾아온 다는 것이다.

이 주문은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서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고백하는 비운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다.

2018년 그는 근육이 위축되고 운동신경이 소멸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담담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집필하고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 납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2022년 1월 안락사를 택 하여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17년간의 수행으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것을 '초능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비타민 한 알

추억거리로나 남아 있을 뿐인가. 더 해찰을 부리기에 어느새 시간이 촉박했다. 비는 아 까보다 더 세차게 쏟아졌다. 섬광처럼 번개가 번뜩이고 우르릉 광 천둥까지 요란했다. 몸은 벌써 물에 빠진 생 쥐 꼴이었던 그에게 대수라. 폭우를 뚫고 용감히 전진할 수밖에. 급히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 고 와이퍼를 고속으로 작동시키며 거속페달을 밟았다.

어떡하지? 누구 없나? 두리번두리번, 아무리 둘러 봐도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비바람만 세차게 몰 아치고 있을 뿐 후미진 골목길은 심지어 음산하기까지 했다. 사소한 다름이었지만 아직 말 걸기는 싫는데, 오 가는 시간 빠르면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별수 없 이 남편을 불렀다. 그 역시 근무 중이었지만 내 숨넘어 가는 소리에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GGM 광주, 얼마나 건강한가

하고 있고 98년 현대자동차가 이를 인수하여 광주 제 조업 중 최대의 주력산업으로 광주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는 빛그린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300만 평을 확보하고 있고 광주비행장이 빠져나가면 250만 평이 더 확보될 것이다. 테슬라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기업들을 미래차 아시아거점인 광주로 유치하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광주가 현지점에서 조심하고 경제해야 할 중대 사안은 광주의 미래를 담보한 대한민국 상생일자리 제1호로 출발한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이다. 지금의 사업 규모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지구 전체를 상대 하는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광주로 보서는 정말 대단한 효자기업이다.

따라서 GGM직원들은 수입이 늘어나니 사기 또한 살아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광주시 27개 산하공공 기관에서 '캐스퍼 전기차' 구매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캐스퍼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고 이의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생에서 언제나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생각을 모두 밀어버린다면 바닥이 없는 심정으로 빠져들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두려움과 아픔이 마침내 당신을 찾아왔을 때 가느다란, 그러나 굳건한 구름줄이 되어 줄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보면 내가 인생에서 백패센트 옳다고 생각했을 때 나쁜 선택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요즘 의료대란, 특검,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야당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고 있어 국민의 인내는 한계점에 이른 것 같다. "정권의 전지전능·무오류를 전제로 한 질주와 전복, 내부비판·교정 기능의 점멸과 남 탓,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社說

'예측불허' 호남 재선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10·16 재보궐 선거'의 호남 선거구는 영광과 곡성이다. 두 곳 모두 군수가 중도에 낙마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현장을 둘러 본 분사 취재기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표심이 예측불허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영광과 곡성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 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접전을 벌인 곳인데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바 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확대·추가해야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이 뭘이 해도 사업장 내 안전이다. 2022년 3만 9142장(163장), 2023년 6만 3464장(260장), 올해에는 7만장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이 뭘이 해도 사업장 내 안전이다. 2022년 3만 9142장(163장), 2023년 6만 3464장(260장), 올해에는 7만장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탁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안전하고 비용이 아주 저렴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광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5선 관록의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신정훈 의원이 영광에 상주하며 총력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재명 대표까지 영광을 찾아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긴장하는 모습이 예측불허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 독주로 인해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돼 왔다. 이번 재선거는 모처럼 호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힌 만큼 후보들은 공정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2021년 설립 당시 1만 2365장(하루 평균 77장)에 그쳤으나 점차 증가해 여기에 노동자들이 안전만큼이나 중시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작업복 세탁소이다. 일반 노동자들은 땀이나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개인이 세탁해도 되지만 산업현장 노동자의 작업복은 일반 세탁이 불가능한 탓이다.

광주시가 노동자 건강을 위해 하남 1호 점에 이어 빛그린산단에 2호점 개소를 계획한 것은 바람직하다. 여기에 하남산단 '글클리닝'의 하루 처리가능 용량이 1000장이지만 아직 이용량은 300장에 불과한 점을 고려,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나머지 산단의 세탁물에 대한 수거·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無等鼓

고대에는 순장(殉葬)이 왕족과 귀족의 장례를 치를 때 드물지 않은 풍속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지증왕 3년, 502년)에는 "춘삼월 왕이 영을 내려 순장을 금지했다. 그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다섯 명씩을 순장했는데, 이 때에 이르러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순장(殉葬)

금동관과 금동관모 등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한 것으로 미뤄 신라 왕족이나 최고위 귀족층으로 여겨진다. 놀랍게도 이 여성의 발치 아래에 순장된 여아의 나이는 3살 안팎이었다. 연구팀은 어린이는 주인의 비녀(婦女·여종)로 태어나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할 무렵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은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피장자의 성격 재검토' 논문에서 정촌고분이 순장의 증거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정촌고분 1호실에서 발견된 목관 세 개가 동시에 안장됐다는 게 골자다. 그는 순차적으로 이뤄진 추가 매장 흔적이 보이지 않고 발굴 유품에서도 신 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신발의 주인은 40대 여성으로 수장급 인물로 추정된다. 이 실장의 눈세는 2020년 발표 당시

눈길을 끌었으나 학계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촌고분 피장자들이 모두 세차례에 걸쳐 안장됐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고대의 순장제도가 얼핏 잔인한 매장풍속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순장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지 않을까. 추모하는 방식은 달랐으나 망자를 그리워하고 죽음을 애달파하는 마음은 현재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Table with header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It also includes a note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news and information.